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이 아버지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

서 현 정 정 하 영 이 덕 희 이 동 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 지각된 배우자 지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아버지역할 수행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남성 출소자 19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SPSS 21.0 및 AMO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학대외상이 높을수록 아버지역할 수행이 낮아졌다. 둘째, 아동기 학대외상이 많을수록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낮았으며,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낮을수록 아버지역할 수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학대외상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적게 하였으며,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가 낮을수록 아버지역할 수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할 수행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아동기 학대외상이 높을수록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낮아졌으며,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낮을수록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도 적게 하였다. 또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가 낮아질수록 아버지역할 수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남성 출소자, 아동기 학대외상, 지각된 배우자 지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아버지역할 수행

[†] 교신저자: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서울특별시 중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 dhlawrence05@gmail.com

출소자들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수감기간 중 자녀와 분리되어 있던 출소자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면서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 수행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출소자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더불어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버지역할 수행은 출소자의 가족 내 복귀의 성공요인이며, 가족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이동훈, 신지영, 방기연, 2015). 출소자는 출소자 자녀의 부모로서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만큼, 출소자가 보고하는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범죄현장에서 90% 이상의 수용자들이 남성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성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대한 탐색에 초점을 두었다.

아버지역할 수행은 아버지로서 양육자 및 교육자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뜻한다(이동훈, 강수운, 지승희, 2016). 부모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때 일상생활에서의 긴장 등이 완화되고, 생활만족도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Guidubaldi, & Cleminshaw, 1989).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놀이상대자와 생활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때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수준이 높아졌으며(Dubowitz et al., 2001; Fantuzzo, Tighe, McWayne, Davis, & Childs, 2003), 허영림(2006)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태도가 자녀의 인지, 신체, 정서,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아버지가 가족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박성덕, 서연실, 2016; Flouri & Buchanan, 2002, 2004; Wilson & Prior, 2011).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아버지역할 수행은 특히나 민감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 자녀에게 다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버지

역할 수행은 특히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그리고 대인관계능력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남진열, 김상미, 2011; 전해경, 김병석, 김재철, 최희철,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특히 이들이 경험한 아동기 학대외상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최근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Hugill, Berry, & Fletcher, 2017; Labella, Raby, Martin, & Roisman, 2019). 아버지로서의 개인이 경험한 아동기의 학대외상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 및 방임뿐만 아니라(Thornberry, Knight, & Lovegrove, 2012; Thornberry et al., 2013) 저조한 부모역할 수행(Locke & Newcomb, 2004), 폭력적인 양육행동(Conger, Schofield, Neppl, 2012; Herrenkohl et al., 2013)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아동기 학대와 부정적 아버지역할 수행이라는 굴레가 반복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Labella 등(2019)의 연구에서 아동기 시절의 학대와 방임 경험은 낮은 지지적 부모역할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남성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이 이들의 성인기 아버지역할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아동기 학대외상의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학대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성인기에 형성한 대인관계에서 얻는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부모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부모역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우자의 지지가 부모역할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배우자 지지와 부모 효능감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보인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 된다(김낙홍, 박영숙, 2016).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객관적인 타인의 지지보

다는 개인이 타인의 지지를 어떻게 지각하였는 지가 지지를 받는 개인에게 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Thoits, 2011; Uchino, 2009), 본 연구에서도 출소자가 지각한 배우자의 지지 수준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배우자 지지란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지지를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를 뜻한다. Taylor(2011)는 원가족에게서 받은 정서적 학대는 성인기 대인관계에서 받게 되는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는 성인기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된다(Festinger & Baker,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외상을 경험한 이들은 타인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Festinger & Baker, 2010; Frederick & Goddard, 2008; Muller, Gragtmans, & Baker, 2008), 아동기 학대외상이 낮게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거쳐 낮은 아버지역할 수행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제로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경제적, 정보적, 사교적 지원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감소시킨다(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6; 임현주, 이대균, 2013; Haslam, Pakenham, & Smith, 2006). 또한, 남편이 아내의 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자녀와의 접촉과 교류가 증가하는 등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ndrews, Luckey, Bolden, Whiting-Fickling, & Lind, 2004; Belsky, 1984). 뿐만 아니라 국내 류석진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출소자가 가정에 복귀한 후 경험한 다양한 보호요인 중 배우자의 지지와 배려는 출소자의 가정 복귀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출소자에게 있어 지각된 배우자의 지지는 출소자가 가정으로 복귀하여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은 이들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주요 선행 변인으로 주목받아 왔으나, 이들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아동기 학대외상과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에 중요한 중재요인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출소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이들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그들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민하영, 2015; Cuzzocrea, Murdaca, Costa, Filippello, & Larcana, 2016; Schofield, Conger, & Neppl, 2014)를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더불어(Schofield et al., 2014), 여성 양육자의 소극적 대처방식 중 하나인 회피적 대처방식은 부부갈등이 이들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민하영, 2015). 더불어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요구되지만 이에 앞서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 염정선(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였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으로 설명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요청하는 보다 적응적인 스트레스 방식으로 보고된다(김정희, 1987; Skinner, & Zimmer-Gembeck,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 지각된 배우자지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과 아버지역할 수행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아동기 학대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개인은 부모로부터 바람직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학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역경에 부딪혔을 때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기 어렵고, 이것이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Harris & Curtin, 2002). 또한, 외상 경험은 피해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적응을 유발하는데(Dutton, 1999; Haapasalo, & Pokela, 1999), 아동기 외상경험을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Cicchetti, & Toth, 2005)에서는 대학생들이 과거 학대로 인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부적응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기에 성 학대를 경험한 여성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소극적이고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대처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Gibb, 2002). 국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기 외상이 초기부적응 도식을 매개하여 회피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은정, 김진숙, 2010)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기에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문제 상황에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게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통해 아동기 학대 외상 경험이 출소자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낮은 수준으로 사용되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이들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출소자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는 이들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oits(1986)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배우자 지지는 출소자의 스트레스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긍정적인 지지는 지각되는 위협과 그에 수반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킴과 더불어(Evans, Steel,

Watkins, & DiLillo, 2014),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대인관계 기제라고 할 수 있다(Kessler, Price, & Wortman, 1985). 특히 Ali와 Kausar(2016)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문제해결 대처방식 및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출소자가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 외상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해 실제로 아버지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출소자는 범죄행위로 인한 교도소 수감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은 주거, 교육, 취업 및 가족관계 회복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아버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Wildeman & Western, 2010). 특히 출소준비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의 학력, 소득은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 또한 이들의 출소 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에 포함되어 있다(신연희, 2015). 이와 더불어 수감기간 또한 출소자의 가족관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에 대한 영향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이동훈 등,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을 다룸에 앞서 이들의 나이, 학력, 소득, 수감기간이라는 변인을 통제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모델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고 아버지역할 수행이 서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들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미치는 아동기 학대외상의 영향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통합적 구조모형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첫째,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은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할 수행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할 수행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이중매개효과를 갖는가?

방 법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공동연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중 청소년 자녀를 가진 출소자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며, 조사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12개월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공문을 통해 서울, 경기, 경기북부, 인천, 강원, 부산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총 9개 지부에 배포되었고, 설문지 배부 및 회수는 각 지부의 담당자

의 협조 하에 이루어 졌다. 담당자에게 연구목적과 자료 활용, 설문지 내용, 실시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다. 설문에 응답하는 출소자에게 연구의 목적, 자료 활용 범위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최대한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설문을 마친 대상자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였으며, 완료된 설문지는 각 담당자가 취합 및 봉인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431(86.2%)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431부 중 불성실한 응답자 23(4.6%)부와 여성 출소자 105(21.0%)부, 마지막으로 가족 및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82(16.4%)명과 배우자가 없이 자녀와만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31(6.2%)명을 제외한 총 190(38.0%)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IRB(2014-10-001)를 승인받았으며, 설문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측정도구

아동기 학대외상 척도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Bernstein와 Fink(1998)가 제작한 아동기 학대외상 척도(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 CTQ)를 사용하였다. 아동기 학대외상 척도는 정서적 학대(예: 우리 가족은 나를 멍청이, 게으름뱅이, 바보, 병신이라고 놀렸다.), 정서적 방임(예: 우리 가족은 나에게 힘을 주었고 나를 지지해 주었다(역)), 신체적 학대(예: 가족 중 한 사람이 나를 심하게 때려 상처가 나거나 멍 든 적이 있다.), 신체적 방임(예: 나는 배불리 먹지 못했다.), 성적 학대(예: 누군가 나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성적인 잡지, 비디오를 보게 하였다.) 등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는 5개 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외상을 '18세 이전에 아동이 양육에 책임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받은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서적 학대와 방임(김은정, 김진숙, 2010; 배미향, 조영아, 2014)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성적 학대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Roth, Newman, Pelcovitz, Kolk와 Mandel (1997)의 의견과 성학대는 독립적인 위험요인임을 강조한 Swanston 등(2003)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적 학대 5문항을 제외한 총 20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문항은 응답자에게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들로부터 겪었던 경험에 관한 문항으로 만 18세 이전의 과거의 경험을 묻고 있다. 리커트 4점 척도(0: 전혀 없었다, 3: 자주 있었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학대 혹은 방임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916, 정서적 학대 .794, 정서적 방임 .927, 신체적 학대 .925, 신체적 방임 .633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배우자 지지

Abbey 등(1985)이 고안한 사회적 지지와 갈등에 관한 척도를 전지아(1990)가 번안한 것을 배우자 지지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사회적 지지 6문항, 사회적 갈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6문항(예: 배우자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을 사용하여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확인하고자 사용된 사회적 지지의 6문항은 감정(affect), 긍정(affirmation), 도움(aid)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Kahn, 1980). 감정은 존중이나 사랑을 의미하며, 긍정은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의 적절성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정서적 지지를 평가한다. 도움은 돈을 빌려주거나, 실제로 일의 수행을 도와주는 직접적인 도움을 의미하며,

기능적 지지를 평가한다. 리커트 5점 척도(1: 아주 조금, 5: 아주 많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67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출소자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한 68개 문항(the ways of coping checklist)을 이장호, 김정희(1988)가 번안하고, 오수성, 신현균(2008)이 요인부하량에 따라 재구성한 20개 문항 중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크게 문제중심적 대처방식(problem-focused coping)과 정서중심적 대처방식(emotion-focused coping)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김정희(1987)는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을 문제해결 대처방식(예: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과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예: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논한다)으로,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을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예: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이나 소망을 한다.)과 정서완화적 대처방식(예: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으로 세분화하고, 전자를 적극적 대처방식, 후자를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적극적 대처방식인 문제 해결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만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문제 해결 대처방식은 문제를 유발하는 개인적·환경적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문을 구함으로써 당면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을 말한다. 척도는 리커트 4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4: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대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857, 문제 해결 대처 .800, 사회적 지지 추

구 대치 .829로 나타났다.

아버지역할 수행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특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anfield (1995)가 사용한 아버지역할 수행 척도(fathering practice scale: FPS)를 조선화(1998)가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역할 수행 척도는 자녀와의 대화(4문항), 양육자의 일관성(5문항), 자녀양육 역할(7문항), 남편의 역할(5문항), 부양자 역할(7문항), 자녀 이해도(7문항), 자녀에게 애정표현(6문항), 자녀교육 역할(7문항)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가 아버지로서 자녀와의 대화 기회를 얼마나 갖는지, 자녀양육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자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표현하는지, 자녀를 교육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8개의 하위변인 중 자녀와 관련된 자녀와의 대화(예: 나는 자녀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녀를 대한다.), 자녀양육 역할(예: 나는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역)), 자녀에게 애정표현(예: 자녀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잘했구나”하고 아이를 칭찬한다.), 자녀교육 역할(예: 자녀의 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4개의 하위변인을 선택하고 7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과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으로 공통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계수가 0.3이상인 문항들 중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요인부하량은 자녀와의 대화 .975, 자녀양육 역할 .890~.767, 자녀에게 애정표현 .907~.687, 자녀교육 역할 .872~.813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대한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부정적 진술문인 2번, 3번 문항은 역점수로 환원하여 계산하였다. 1문항인 자녀와의 대화를 제외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822, 자녀양육 역할 .673, 자녀에게 애정표현 .756, 자녀교육 역할 .828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 시 그 시점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항을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횡단 연구이다. 자녀에 대한 남성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 및 AMOS 21.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Kline(2000)의 제안에 따라 0.9 이상을 훌륭한(excellent), 0.7-0.9를 좋은(good), 0.6-0.7을 받아들일 수 있는(acceptable) 신뢰도로 판단하였다. 둘째, SPSS 21.0을 사용하여 연구 변인(아동기 학대외상, 지각된 배우자 지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아버지역할 수행)의 정규성 및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단일요인인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요인을 Matsunaga(2008)와 Little, Rhemtulla, Gibson, Schoemann(2013)의 제안에 따라 요인을 세 개와 네 개로 문항묶음(item-parcel)하였으며, 이때 문항들이 하나의 변수를 측정한다고 판단하여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기준으로 문항을 묶는(이지현, 김수영, 2016) 요인 알고리즘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AMOS 21.0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때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통해 요인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한 후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 수에 민감한 χ^2 검증(chi-square test)을 대신하여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approximation index)를 확인하였다. Bentler와 Bonett(1980) 그리고 Tucker와 Lewis(1973)의 제안에 따라 CFI와 TLI 값 0.90이상을 적절한 적합도로 판단하였으며, Browne와 Cudeck(1993)의 제안을 기준으로 하여 RMSEA 0.05이하를 매우 좋은 적합도(close fit), 0.05-0.08은 괜찮은 적합도(fair fit)로 판단하였다. 또한 각 요인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고, Hari, Anderson, Tatham과 Black(1998)의 제안에 따라 0.3 이상을 적합한 수렴타당도로 해석하였다. 넷째, 연구모형의 적절성 및 경로확인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실시하였다. 이때 매개 변인의 개별적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Chan(2007)이 제안한 팬텀(phantom)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때 95% 신뢰구간 안에 '0'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총 연구 대상자 190명은 모두 '남성'으로, 연령대는 '40~49세'가 72명(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50~59세'가 71명(37.4%), '30~39세'가 31명(16.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64명(3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46명(24.2%), '고등학교 중퇴'가 23명(12.1%)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92명(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68명(35.8%),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17명(8.9%) 순으로 나타났다. 수감 기간의 경우 '1년 미만'이 59명(31.1%)

으로 가장 많았으며, '1~2년'이 54명(28.4%), '2~5년'이 41명(21.6%) 순이었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측정변인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결과는 표 1과 같다. 측정변인의 정규성과 경향성 검증은 Kline(2015)의 기준에 따라 왜도의 절대값은 3 이하, 첨도는 10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왜도와 첨도 모두 정규성과 경향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측정변인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모형 검증

잠재변인이 측정변수에 의해 적절히 구인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그 결과 모두 .3이상으로 Hari 등(1998)의 기준을 만족하여 측정 모형의 수렴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각 요인 간 상관이 모두 Kline(2015)이 제안한 .9이하이기 때문에 변별타당도 또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표 5과 같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결과는 표 6과 그림 1과 같다. 이때 연구 참여자의 학력, 월 평균 소득, 수감기간에 따라 결과가 차이가 있을 것이 예상되어 연구 참여자의 학력, 월 평균 소득, 수감기간을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학대외상'이 '아버지역할 수행($\beta = -.174, p < .05$)', '지각된 배우자 지지($\beta = -.207, p < .05$)',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beta = -.197, p < .05$)'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beta = .421, p < .001$)', '아버지역할 수행($\beta = .196, p < .05$)'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

표 1. 전체 대상자에 따른 변인 간 기술통계

		M	SD	왜도	첨도
아동기 학대 외상	아동기 학대 외상 합계	12.063	11.03	1.323	1.646
	정서적 학대	.522	.616	1.500	1.898
	신체적 학대	.403	.696	2.276	4.723
	정서적 방임	.867	.847	.849	-.126
	신체적 방임	.620	.556	1.108	1.326
지각된 배우자 지지	지각된 배우자지지 합계	23.874	6.016	-1.333	2.141
	지각된 배우자 지지 1	3.992	1.019	-1.214	1.820
	지각된 배우자 지지 2	3.974	1.030	-1.281	1.927
	지각된 배우자 지지 3	3.971	1.057	-1.262	1.648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합계	19.932	4.877	-.094	-.258
	문제중심 대처 1	2.037	.585	-.064	-.554
	문제중심 대처 2	2.195	.512	-.178	-.083
	사회적지지 추구 1	2.000	.659	-.351	-.125
	사회적지지 추구 2	1.758	.688	-.249	-.180
아버지역할 수행	아버지 역할 수행 합계	27.732	4.778	-.438	-.667
	자녀와의 대화	3.753	.935	-.858	.872
	자녀양육역할	3.745	.978	-.447	-.366
	자녀에게 애정표현	4.345	.726	-1.089	.867
	자녀교육역할	3.900	.876	-.364	-.727

였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아버지역할 수행($\beta = .548, p < .001$)’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다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을 확인한 결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065,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360, 아버지역할 수행은 .560으로 나타났다.

매개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아동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할 수행’ 사이에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기법(Shrout, & Bolger, 2002)을 사용하였다. 매개모형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때 매개효과 추정값이 편파성교정 95% 신뢰구간(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 내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아동기 학대외상’이 ‘아버지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때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95% 신뢰구간 하한과 상한 사이(95% 신뢰구간 = $-.083 \sim -.001$)에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아동기 학대외상’이 ‘아버지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때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95% 신뢰구간 하한과 상한 사이(95% 신뢰구간 = $-.175 \sim -.010$)에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셋째, ‘아동기 학대외

표 2. 측정변인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인령	-																			
2. 학력	.033	-																		
3. 월 평균 소득	-.086	.181*	-																	
4. 수감기간	.084	-.099	-.021	-																
5. 정서적 학대	-.051	-.171*	-.174*	.053	-															
6. 신체적 학대	-.090	-.180*	-.103	.124	.665**	-														
7. 정서적 방임	-.084	-.237**	-.075	.040	.514**	.438**	-													
8. 신체적 방임	-.036	-.184*	-.114	.036	.570**	.566**	.558**	-												
9. 지각된 배우자 지지 1	.071	.000	.115	.037	-.213**	-.091	-.121	-.090	-											
10. 지각된 배우자 지지 2	.042	-.005	.114	.036	-.213**	-.069	-.183*	-.113	.915**	-										
11. 지각된 배우자 지지 3	.076	.004	.155*	.061	-.265**	-.106	-.141	-.119	.898**	.910**	-									
12. 문제중심 대처 1	.157*	.144*	.187**	.031	-.275**	-.129	-.313**	-.235**	.386**	.375**	.355**	-								
13. 문제중심 대처 2	.180*	.152*	.251**	.000	-.243**	-.084	-.338**	-.241**	.383**	.381**	.354**	.658**	-							
14. 사회적지지 추구 1	.037	.074	.073	-.022	-.146*	-.032	-.199**	-.152*	.311**	.304**	.340**	.395**	.463**	-						
15. 사회적지지 추구 2	.063	.145*	.137	-.116	-.163*	-.089	-.238**	-.108	.261**	.236**	.284**	.405**	.456**	.689**	-					
16. 자녀와의 대화	.038	.077	.077	.030	-.204**	-.080	-.170*	-.045	.189**	.194**	.185*	.229**	.237**	.172*	.123	-				
17. 자녀양육역할	-.109	-.049	.135	-.005	-.262**	-.190**	-.269**	-.275**	.372**	.377**	.366**	.296**	.325**	.234**	.227**	.194**	-			
18. 자녀에게 애정표현	-.046	.044	-.005	.115	-.261**	-.119	-.255**	-.199**	.317**	.357**	.346**	.381**	.442**	.335**	.298**	.348**	.514**	-		
19. 자녀교육역할	.017	.075	.052	.089	-.213**	-.092	-.245**	-.221**	.368**	.381**	.387**	.389**	.427**	.341**	.314**	.299**	.564**	.693**	-	

주. * $p < .05$. ** $p < .01$.

서현정 외 /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이 아버지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p	CFI	TLI	RMSEA
측정모형	156.529	84	.000	.955	.944	.068(.051-.084)

표 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beta(B)$	S.E.	C.R.
아동기 학대 외상			
정서적 학대	.819(1.000)		
신체적 학대	.755(1.042) ^{***}	.102	10.212
정서적 방임	.658(1.105) ^{***}	.125	8.854
신체적 방임	.742(0.818) ^{***}	.081	10.041
지각된 배우자 지지			
지각된 배우자 지지 1	.950(1.000)		
지각된 배우자 지지 2	.963(1.024) ^{***}	.034	30.157
지각된 배우자 지지 3	.945(1.032) ^{***}	.037	27.785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문제중심 대처 1	.737(1.000)		
문제중심 대처 2	.795(0.944) ^{***}	.099	9.573
사회적지지 추구 1	.658(1.005) ^{***}	.123	8.185
사회적지지 추구 2	.649(1.035) ^{***}	.128	8.074
아버지역할 수행			
자녀와의 대화	.381(1.000)		
자녀양육역할	.656(1.798) ^{***}	.382	4.708
자녀에게 애정표현	.815(1.659) ^{***}	.334	4.975
자녀교육역할	.843(2.071) ^{***}	.414	4.999

주 : *** = $p < .001$

표 5.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χ^2	df	p	CFI	TLI	RMSEA
연구모형	204.383	128	.000	.954	.939	.056(.041-.070)

표 6.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경로	$\beta(B)$	S.E.	C.R.	SMC
아동기 학대 외상 → 지각된 배우자 지지	-.207(-.399)*	.161	-2.483	.065
아동기 학대 외상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197(-.169)*	.071	-2.378	.360
지각된 배우자 지지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421(.189)***	.037	5.121	
아동기 학대 외상 → 아버지역할 수행	-.174(-.123)*	.060	-2.058	
지각된 배우자 지지 → 아버지역할 수행	.196(.072)*	.032	2.266	.560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 아버지역할 수행	.548(.449)***	.122	3.690	

주 :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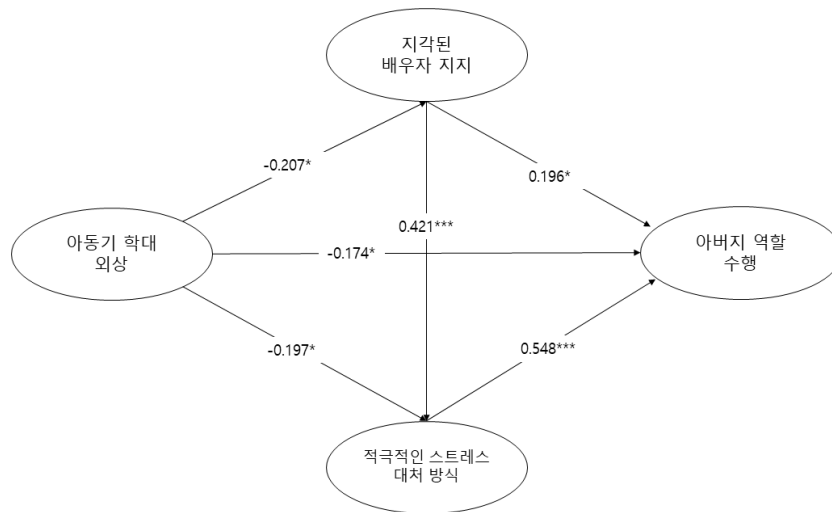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주. 표준화계수

주. 학력, 월 평균 소득, 수감기간 통제

표 7. 매개모형 효과 검증

경로	추정값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아동기 학대 외상 → 지각된 배우자 지지 → 아버지역할 수행	-.029	-.083	-.001
아동기 학대 외상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 아버지역할 수행	-.076	-.175	-.010
아동기 학대 외상 → 지각된 배우자 지지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 아버지역할 수행	-.034	-.083	-.004

상'이 '아버지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때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95% 신뢰구간 하한과 상한 사이(95% 신뢰구간 = $-.083 \sim -.004$)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아동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할 수행' 관계 내에서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기 학대외상, 지각된 배우자 지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고 아동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할 수행의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통합적 구조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은 아버지역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들의 아동기 학대외상이 높을수록, 낮은 아버지역할 수행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아동기 학대외상이 출소자들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는 성인이 자신이 자녀에 대한 학대 및 방임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Thornberry et al., 2012; Thornberry et al., 2013; Widom, Czaja, & DuMont, 2015). 특히 아동기 학대외상이 저조한 부모역할 수행(Locke & Newcomb, 2004), 폭력적인 양육행동(Conger et al., 2012; Herrenkohl et al., 2013)과 상관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성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은 이들이 부모가 된

이후 아버지역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남성 출소자들이 보고하는 아동기 학대외상 경험이 이들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들의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인과 결합되었을 때 자녀에게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둘째, 아동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할 수행의 관계에서 출소자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이들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모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아동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할 수행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통해, 출소자들은 아동기 학대외상을 겪을수록 배우자의 지지를 지각하는 수준이 낮으나,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통해 아버지역할 수행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기 학대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인의 지지를 낮게 인식한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함과 동시에(Festinger & Baker, 2010; Frederick & Goddard, 2008; Muller et al., 2008), 아내의 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Andrews et al., 2004). 이와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아동기 학대외상 경험이 성인기 부모역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배우자의 지지를 강조하는 바이며, 이는 출소자들은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는데 있어 보호요인들 중 하나로 배우자의 지지와 배려를 보고하였다는 연구결과(류석진 등, 2016)를 지지한다. 따라서 가족의 지지가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Visher & Travis, 2003),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 경험은 이들이 배우자의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출소자는 낮게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바탕으로 이들의 자녀에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출소자들의 어린 시절 학대경험은 이들의 성인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출소자들은 아동기 학대외상을 겪을수록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나,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해 아버지역할 수행이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기 심리적 학대를 경험할수록 적극적인 스트레스를 더 적게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Arslan, 2017). 이와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Schofield, et al., 2014)와 같은 맥락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외상 경험이 있는 출소자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이들의 아동기 학대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 요소가 있을지라도, 적절한 수준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갖추어 진다면, 이들의 학대외상 경험으로 인한 낮은 수준의 아버지역할 수행 능력을 보다 보완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출소자의 가족 내 적응에 있어서 주변의 지지와 도움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적극적으로 문제에 직면하고 그것을 타개하고자 하는 태도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특히 출소자에게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습득하는 것은 아버지역할 수행 외에도 출소 후 다시 모이게 된 출소자의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소자들이 낮은 수준의 아버지역할 수행을 보고할 때, 이들의 어린시절 학대외상 경험

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정도도 함께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할 수행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아동기 학대외상이 높을수록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낮아졌으며,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낮을수록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도 적게 하여 결국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가 낮아질수록 아버지역할 수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문제해결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함과 동시에(Kessler et al., 1985; Zabalegui, Cabrera, Navarro, & Cebria, 2013),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개인의 방식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며(Webster-Stratton, 1990),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수록 심리적 부적응이 줄어든다(이민정, 최진아, 2013)는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높은 수준의 아동기 학대외상을 보고하는 출소자의 경우, 이들이 배우자의 지지를 보다 잘 지각할 수 있도록 개입함으로써 이들의 아버지 역할 수행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음을 함의한다. 출소 후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출소자들에게 있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동기에 학대경험이 있는 출소자들은 자신의 심리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은 이들의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는 배우자 지지를 안정적으로 지각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과 관련한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며 처벌적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출소자들을 재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재통합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이들의 아동기 학대외상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외상경험이 성인기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 및 행동적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소자가 보고하는 아동기 외상 경험에 대한 심리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피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출소자 자녀에 주목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출소자의 부모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학업, 경제적 지원 등이 정책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8),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존재이다. 특히 아버지와의 애착은 청소년 자녀의 공감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폭력적인 태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홍종숙, 고연경, 유정진, 2013). 그러나 부모가 양육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자녀에게 부모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범죄의 대물림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출소자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을 위하여 청소년 자녀를 둔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심리적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남성 출소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출소자의 아버지 역할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 출소자와 그들의 어

머니역할에 주목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었으나(이동훈, 신지영, 조은정, 김진주, 2016; 이아름, 김미현, 이동훈, 2017), 수용자의 약 90%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출소자의 아버지 역할을 탐색한 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근혜, 김혜순, 2013; 김종훈, 양소영, 성지현, 2013; 서석원, 이대균, 201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출소자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수록 출소자 부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출소자 가족 안의 긍정적 순환체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가정으로 돌아오면서 다시금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남성 출소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출소자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제 출소자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자기보고식 척도는 대상자의 기억 및 주관에 의존하여 자료가 수집되기 때문에 답변에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결과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결과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는 출소자 자녀의 연령과 출소자의 범죄유형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출소자의 범죄유형과 자녀의 연령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해당 변인들을 연구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아버지역할 수행 척도를 사용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문항을 선별하였다. 그러나 탐색적 요인분석만으로 구성 타당도와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또한 함께 실시하기를 제안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여, 모든 출소자 집단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소자들은 지원을 받는 출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사회 적응이 보다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표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출소자가 보고한 아동기 학대외상의 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는 중요한 한계점을 가진다. 아동기 학대외상을 측정한다수의 선행연구 또한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자가 보고한 아동기 학대외상의 평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유의미하게 해석하고 있으나(O'Connor, Green, Ferguson, O'Carroll, & O'Connor, 2018; Wang, Shi, & Jin, 2019), 연구 대상 선정에 있어 아동기 학대 외상을 경험한 대상만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출소자의 사회적응 및 이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소자들의 아버지 역할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출소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의 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소자에게 가족과의 연결감과 유대감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보호요인인 만큼, 출소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출소자는 필요한 가족구성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 학대경험이 있는 출소자의 경우, 가족 구성원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의 자녀에게 아버지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 따라서 출소자가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는 이들의 갈등대처행동, 의사소통방식, 경제수준 등을 반영하여(박영화, 고재홍, 2005; 현경자, 2008)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출소자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 주고받는 영향을 탐색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자녀를 둔 출소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개원 및 지원이 이루어짐에 앞서 출소자의 어린시절 학대외상 경험의 영향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출소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출소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저자 소개

서현정은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상담교육을 전공하였다. 주요 연구 관심사로는 출소자 및 외상 관련 연구 등이 있다.

이동훈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로는 출소자, 세월호, 재난, 외상 관련 연구 등이 있다.

정하영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으며 상담교육을 전공하였다. 주요 연구 관심사로는 출소자 및 외상 관련 연구 등이 있다.

이덕희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다. 주요 연구 관심사로는 출소자 및 외상 관련 연구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김근혜, 김혜순 (2013). 만 5 세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아동교육*, 22(4), 111-129.
- 김낙홍, 박영숙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기분화와 부모효능감의 관계에서 배우

- 자지지의 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5(4), 243-264.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종훈, 양소영, 성지현 (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1), 87-102.
- 남진열, 김상미 (201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2), 315-334.
- 류석진, 노지애, 이동훈, 박성현, 오세준, 조현주 (2016). 출소자 가정복귀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질적연구. *재활심리연구*, 23(2), 469-490.
- 민하영 (2015).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부부갈등과 부부갈등에 대한 회피적 대처행동의 영향: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6(2), 131-143. DOI: DOI:dx.doi.org/10.5723/KJCS.2015.36.2.131
- 박성덕, 서연실 (2016). 어머니가 인지한 아버지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193-212.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배미향, 조영아 (2014).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1849-1870.
- 서석원, 이대균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157-178.
- 신연희 (2015). 부모의 교도소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문제행동 관련요인 - 출소준비 수행자 및 출소자 대상조사. *한국아동복지학*, 51, 219-249.
-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특성의 종단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98, 1-28.
- 염정선 (2014). 출소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재범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수성, 신현균 (2008). 5·18 피해자들의 생활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스트레스, 심리건강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595-611.
- 이동훈, 강수운, 지승희 (2016).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복귀 경험에 관한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4), 595-622. DOI: http://dx.doi.org/10.20406/kjcs.2016.11.22.4.595
- 이동훈, 신지영, 방기연 (2015). 절망 속에서 희망 찾기: 주거지원 남성출소자의 교도소 수감 및 출소에 대한 부인의 경험. *상담학연구*, 16(4), 595-619.
- 이동훈, 신지영, 조은정, 김진주 (2016).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81-108.
- 이민정, 최진아 (2013).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6), 3739-3751.
- 이아름, 김미현, 이동훈 (2017). 여성출소자의 사회재진입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5), 388-409.
- 이장호, 김정희 (1988).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 25-45.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특성: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327-353.
- 임현주, 이대균 (2013). 부부특성 및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후속출산에 미

- 치는 효과: 모의 취업과 후속출산계획 여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유아교육연구*, 33(2), 121-144.
- 전지아 (1990). 산후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망이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경, 김병석, 김재철, 최희철 (2012).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3), 1233-1252.
- 조선화 (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8). <https://koreha.or.kr>에서 검색.
- 허영림 (2006).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6, 97-116.
- 현경자 (2008).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결혼결과: 탄력적 대응을 돕는 기혼자의 자기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3), 49-79.
- 홍종숙, 고연경, 유정진 (2013). 아버지와 의 애착이 중학생의 폭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4), 89-101.
- Abbey, A., Abramis, D. J. & Caplan, R. D. (1985). Effects of different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onflict on emotional well-bein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6(2), 111-129. DOI:10.1207/s15324834basp0602_2
- Ali, N., & Kausar, R. (2016). Social support and coping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family caregivers of stroke patients. *Pakistan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31(2), 587-568.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ndrews, A. B., Luckey, I., Bolden, E., Whiting-Fickling, J. & Lind, K. A. (2004). Public perceptions about father involvement: Results of a statewide household survey. *Journal of Family Issues*, 25(5), 603-633. DOI: <https://doi.org/10.1177/0192513X03258303>
- Arslan, G. (2017). Psychological maltreatment, coping strategies, and mental health problems: A brief and effective measure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in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68, 96-106. DOI: <https://doi.org/10.1016/j.chiabu.2017.03.023>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606.
-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Canfield, K. R. (1995). *Effective fathering practices and fathering satisfaction related to a father's life cours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Kansas State University.
- Chan, W. (2007).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SEM: A sequential model fitting method using covariance equivalent specific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2), 326-346. DOI: <https://doi.org/10.1080/10705510709336749>
- Cicchetti, D., & Toth, S. L. (2005). Child maltreatment. *The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 409-438. DOI: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1.102803.144029>
- Conger, R. D., Schofield, T. J., & Neppl, T. K. (2012). Intergenerational continuity and

- discontinuity in harsh parenting. *Parenting*, 12(2-3), 222-231. DOI: <https://doi.org/10.1080/15295192.2012.683360>
- Cuzzocrea, F., Murdaca, A. M., Costa, S., Filippello, P., & Larcán, R. (2016). Parental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a disability. *Child Care in Practice*, 22(1), 3-19. DOI: <https://doi.org/10.1080/13575279.2015.1064357>
- Dubowitz, H., Black, M. M., Cox, C. E., Kerr, M. A., Litrownik, A. J., Radhakrishna, A., English, D. J., Schneider, M. W., & Runyan, D. K. (2001). Father involvement and children's functioning at age 6 years: A multisite study. *Child Maltreatment*, 6(4), 300-309. DOI: <https://doi.org/10.1177/1077559501006004003>
- Dutton, D. G. (1999). Traumatic origins of intimate rag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4), 431-447.
- Evans, S. E., Steel, A. L., Watkins, L. E., & DiLillo, D. (2014).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and adult trauma symptoms: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from a spouse.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6(5), 527-536. DOI: <https://doi.org/10.1037/a0036940>
- Fantuzzo, J., Tighe, E., McWayne, C., Davis, G., & Childs, S. (2003). Peer-reviewed papers: Parent involve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ren's peer-play competencies: An examination of multivariate relationships. *NHSA Dialog: A Research-To-Practice Journal for the Early Intervention Field*, 6(1), 3-21. DOI: https://doi.org/10.1207/s19309325nhsa0601_2
- Festinger, T., & Baker, A. (2010). Prevalence of recalled childhood emotional abuse among child welfare staff and related well-being factor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4), 520-526. DOI: <https://doi.org/10.1016/j.chidyouth.2009.11.004>
- Flouri, E., & Buchanan, A. (2002). Father involvement in childhood and trouble with the police in adolescence: Findings from the 1958 British cohor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6), 689-701. DOI: <https://doi.org/10.1177/0886260502017006006>
- Flouri, E., & Buchanan, A. (2004). Early father's and mother's involvement and child's later educational outcom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2), 141-153. DOI: <https://doi.org/10.1348/000709904773839806>
- Frederick, J., & Goddard, C. (2008). Living on an isl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abuse, attachment disruption and adversity in later life. *Child & Family Social Work*, 13(3), 300-310. DOI: <https://doi.org/10.1111/j.1365-2206.2008.00554.x>
- Frieman, M. (2005). *Privileged, affluent fathers: Perspectives on fathering and their children's schooling*.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 Guidubaldi, J., & Cleminshaw, H. K.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satisfaction scale. In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pp. 257-277). San Diego, CA, US: Academic Press.
- Haapasalo, J., & Pokela, E. (1999). Child-rearing and child abuse antecedents of criminalit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1), 107-127. DOI: [https://doi.org/10.1016/S1359-1789\(97\)00027-X](https://doi.org/10.1016/S1359-1789(97)00027-X)
- Hari, J. F., Anderson, R. E., Tatham, L. T., &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US: Prentice Hall.
- Harris, A. E., & Curtin, L. (2002). Parental perceptions,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depressive symptoms in young adul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3), 405-416.
- Haslam, D. M., Pakenham, K. I., & Smith, A. (2006). Social support and postpartum depressive

- symptomatology: The mediating role of maternal self efficac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7(3), 276-291. DOI: <https://doi.org/10.1002/imhj.20092>
- Herrenkohl, T. I., Klika, J. B., Brown, E. C., Herrenkohl, R. C., & Leeb, R. T. (2013). Tests of the mitigating effects of caring and supportive relationships in the study of abusive disciplining over two generation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3(4), S18-S24. DOI: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13.04.009>
- Hugill, M., Berry, K., & Fletcher, I. (2017). The association between historical childhood sexual abuse and later parenting stress: A systematic review.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20(2), 257-271.
- Kahn, R. L. (1980). Conb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3, 253-286.
- Kessler, R. C., Price, R. H., & Wortman, C. B. (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1), 531-572.
- Kim, E. Y., Park, J. & Kim, B. (2016). Type of childhood maltreatment and the risk of criminal recidivism in adult probationers: A cross-sectional study. *BMC Psychiatry*, 16(1), 294. DOI: <https://doi.org/10.1186/s12888-016-1001-8>
- Kline, P. (2000).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2nd)*. London: Routledge.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Labella, M. H., Raby, K. L., Martin, J., & Roisman, G. I. (2019). Romantic functioning mediates prospective associations between childhood abuse and neglect and parenting outcomes in adult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1(1), 95-111. DOI: <https://doi.org/10.1017/S095457941800158X>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NY, US: Springer.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 Locke, T. F., & Newcomb, M. (2004). Child Maltreatment, parent alcohol-and drug-related problems, polydrug problems, and parenting practices: A test of gender differences and four theoretical perspectiv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1), 120-134. DOI: <https://doi.org/10.1037/0893-3200.18.1.120>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atsunaga, M. (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2(4), 260-293. DOI: <https://doi.org/10.1080/19312450802458935>
- Muller, R. T., Gragtmans, K., & Baker, R. (2008). Childhood physical abuse, attachment, and adult social support: Test of a mediational model.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0(2), 80-89. DOI: <https://doi.org/10.1037/0008-400X.40.2.80>
- O'Connor, D. B., Green, J. A., Ferguson, E., O'Carroll, R. E., & O'Connor, R. C. (2018). Effects of childhood trauma on cortisol levels in suicide attempters and ideators. *Psychoneuroendocrinology*, 88, 9-16. DOI: <https://doi.org/10.1016/j.psyneuen.2017.11.004>
- Roth, S., Newman, E., Pelcovitz, D., van der Kolk, B. A., & Mandel, F. S. (1997). Complex PTSD in victims exposed to sexual and physical abuse: Results from the DSM-IV field trial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4), 539-555. DOI: <https://doi.org/10.1017/S095457941800158X>

- <https://doi.org/10.1023/A:1024837617768>
- Schofield, T. J., Conger, R. D., & Neppl, T. K. (2014). Positive parenting, beliefs about parental efficacy, and active coping: Three sources of intergenerational resili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8*(6), 973-97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DOI: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 Skinner, E. A., & Zimmer-Gembeck, M. J. (2007). The development of cop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119-144. DOI: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8.110405.085705>
- Swanston, H. Y., Parkinson, P. N., O'Toole, B. I., Plunkett, A. M., Shrimpton, S., & Oates, R. K. (2003). Juvenile crime, aggression and delinquency after sexual abuse: A longitudinal stud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3*(4), 729-749. DOI: <https://doi.org/10.1093/bjc/43.4.729>
- Thoits, P. A. (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16-423.
- Thoits, P. A. (2011).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voluntary, mixed, or pressured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Society and Mental Health, 1*(1), 4-19.
- Taylor, S. E. (2011). Social support: A review. In M. S. Friedman (Ed.), *The handbook of health psychology* (pp. 189-214). New York, NY, US: Oxford University Press.
- Thornberry, T. P., Henry, K. L., Smith, C. A., Ireland, T. O., Greenman, S. J., & Lee, R. D. (2013). Breaking the cycle of maltreatment: The role of safe, stable, and nurturing relationship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3*(4), S25-S31. DOI: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13.04.019>
- Thornberry, T. P., Knight, K. E., & Lovegrove, P. J. (2012). Does maltreatment beget maltreatment? A systematic review of the intergenerational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13*(3), 135-152. DOI: <https://doi.org/10.1177/1524838012447697>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 Uchino, B. N. (2009). Understanding the links between social support and physical health: A life-span perspective with emphasis on the separability of perceived and received suppor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4*(3), 236-255. DOI: <https://doi.org/10.1111/j.1745-6924.2009.01122.x>
- Visher, C. A., & Travis, J. (2003). Transitions from prison to community: Understanding individual pathway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1), 89-113. DOI: <https://doi.org/10.1146/annurev.soc.29.010202.095931>
- Webster-Stratton, C. (1990). Stress: A potential disruptor of parent perceptions and 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302-312. DOI: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1904_2
- Widom, C. S., Czaja, S. J., & DuMont, K. A. (2015).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Real or detection bias? *Science, 347*(6229), 1480-1485. DOI: [10.1126/science.1259917](https://doi.org/10.1126/science.1259917)
- Wildeman, C., & Western, B. (2010). Incarceration in fragile families. *The Future of Children, 20*(2), 157-177.
- Wilson, K. R., & Prior, M. R. (2011). Father involvement and child well being. *Journal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47*(7), 405-407.

DOI:
<https://doi.org/10.1111/j.1440-1754.2010.01770.x>
Wang, Q., Shi, W., & Jin, G. (2019). Effect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on Aggressive Behavior: A Moderated Mediation Model.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8(8), 929-942. DOI:
<https://doi.org/10.1080/10926771.2018.1498962>

Zabalegui, A., Cabrera, E., Navarro, M., & Cebria, M. I. (2013).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in advanced cancer patients. *Journal of Research in Nursing*, 18(5), 409-420. DOI: <https://doi.org/10.1177/1744987111424560>

1 차원고접수 : 2019. 09. 06.

수정원고접수 : 2020. 08. 19.

최종게재결정 : 2020. 08. 20.

The Effects of Childhood Abuse Trauma on Fathering Practices among Male Ex-offenders with Adolescent Children: Mediation Effects of Perceived Spousal Support and Active Stress-Coping Styles

HyunJung Suh Hayoung Jung Deokhee Lee DongHun Lee

Department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hood abuse trauma, perceived spousal support, active stress-coping styles and fathering practices of male ex-offenders with adolescent children. Data obtained from a sample of 190 male ex-offenders was analyzed by SPSS 21.0 and AMOS 21.0. Results indicated that childhood abuse trauma had a direct effect on fathering practice. Second, perceived spousal support and active stress-coping styles separately mediated the effect of childhood abuse trauma on fathering practices. Third, the serial-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spousal support and active stress-coping sty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trauma and fathering practices was significa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upport from ex-offenders' spous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reintegration of the family as well as reentr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male ex-offenders, childhood abuse trauma, perceived spousal support, active stress-coping styles, fathering practices